

---

제1차('23~'27년)  
후계·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요약

---

2023.3.



해 양 수 산 부

## 1 계획개요 및 정책대상

- **(계획개요)** 후계·청년어업인의 체계적 육성,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어촌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

\* 「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법」 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)에 따른 법정계획

- **(정책대상)** 후계어업인은 50세 미만이면서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(약 22천명), 청년어업인은 만 40세 미만인 사람(약 14천명)을 의미

\* 50세 미만이면서 영어기간이 10년 미만인 자(후계어업인)에 대한 통계가 없어 50세 미만인 자를 후계어업인으로 산정(청년어업인은 후계어업인에 모두 포함)

## 2 현황 및 문제점

- **(현황)** 저출산·수산업 기피 등에 따라 어촌인구 감소·고령화 심화

- 어가인구는 94천명('21)이며, 5년 전('16, 126천명)에 비해 25.4% 감소
- 어촌지역의 고령화율(만 65세 이상)은 '21년 기준 40.5%('15년 대비 +10%p)로, 전국평균(17.1%) 대비 약 2배 이상 높은 수준

\* 고령화율(%) : ('05) 18.8 → ('10) 23.1 → ('15) 30.5 → ('20) 36.2 → ('21) 40.5

- **(문제점)** 열악한 근로환경, 높은 노동강도 등 청년들의 수산업 진출이 저조하며, 어촌의 불편한 생활여건으로 청·장년층 유입 감소 추세

\* 수산계고교 졸업생의 수산분야 취업률 : ('17) 43.5% → ('21) 31.4%

청년귀어인 수 : ('17) 195명 → ('21) 175명

- **(청년 취·창업)** 청년은 열악한 근로환경 외에도 진로에 대한 정보의 부재와 자금부족\* 등으로 수산업 진출을 주저

\* 후계·청년어업인들이 수산업 진입 초기 겪었던 어려움을 조사했던 설문에서 경영자금 확보(47.9%)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(KMI, '22)

- **(정주여건)** 초기 주거지 마련의 어려움, 취약한 생활서비스(교통, 의료) 등으로 인해 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호소

\* 어촌에 거주하고자 희망하는 도시민이 귀어를 포기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초기 어촌지역 주거지 마련이 어려웠기 때문(43.1%)이라고 응답(귀어귀촌센터, '20)

## 비전

수산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이끄는 후계·청년어업인 육성

## 추진전략

## 추진과제

① 후계·청년어업인의  
수산분야 진출을 위한  
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.

- ① 수산업의 첨단산업화 지원
- ② 어선·위판장 현대화 등 근로환경 개선
- ③ 청년어업인 생애주기적 지원 추진

② 전문성을 갖춘  
후계·청년어업인을  
육성하겠습니다.

- ① 수산계 학교 입학 활성화
- ② 수산계열 직업계고 지원 강화
- ③ 어선어업·양식산업 분야 특화교육 제공

③ 후계·청년어업인의  
수산분야 창업을  
지원하겠습니다.

- ① 융자지원을 통한 수산업 창업지원 강화
- ② 수산업 기반 임대 등 초기 경영부담 완화
- ③ 수산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

④ 후계·청년어업인의  
어촌의 생활여건을  
개선하겠습니다.

- ①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
- ② 정착자금, 거점지원센터 등 어촌정착 지원
- ③ 일자리 발굴을 통한 가족동반정착 지원



우리나라의 수산업과 어촌을 이끌어 나갈  
어업인후계자(3,500명)와 청년어선원(600명)을 육성하여  
우리 수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와 어촌 소멸문제 대응

### ① 후계·청년어업인의 수산분야 진출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.

- **[첨단산업화]** 수산업의 첨단화를 통해 노동력 중심의 산업에서 벗어나 기술 위주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지원('23~)
  - **(어업기자재 스마트화)** 빅데이터(어군의 수량, 종류 등)를 활용한 어군 탐지기, 원격 양망기 등 기술개발로 생산성 향상 도모
  - **(스마트양식 클러스터)** 빅데이터·AI 기반 스마트 양식기술의 실증과 유통·가공 등 연관산업 집적화를 위한 양식단지 조성(~'26)
- **[근로환경 개선]** 어선·위판장 등 시설을 현대화하고 복지시설을 마련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을 통하여 수산업이 3D업종이라는 인식을 개선('23~)
  - **(선원복지공간 확충)**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대체할 신형 어선 건조를 지원(차세대 어선형 개발)하여 어선원을 위한 안전·복지시설\* 확충
    - \* 안전조업공간 설치, 화장실 등 복지공간 확보 및 복원성, 만재흘수선 등 안전기준 강화
  - **(위판장 현대화)** 오래된 위판장이 위생적인 저온·친환경 위판장\*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건축비 등을 지원
    - \* 양륙단계부터 저온유통하여 수산물 품질을 유지하고, 친환경 설비로 운영되는 위판장
- **[생애주기적 지원]** 수산분야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어촌에 적응하고 수산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('23~)
  - **(어촌계 개방)** 청년들의 원활한 어촌 진입을 위하여 어촌계 가입 조건(가입비, 거주기간 등) 완화 추진\*
    - \* 가입조건을 완화한 어촌계 대상으로 시설·장비 등에 최대 1억원 지원
  - **(경력관리)** 수산분야에 진출한 청년의 지속적인 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해 커리어패스 개발\* 및 맞춤형 취업 지원\*\* 상시 추진
    - \* 수산 관련 교육이력 등 개인별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경력개발 등 지원
    - \*\* 어업인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어선어업·양식산업·유통가공업 간 업종 전환도 지원

## ② 전문성을 갖춘 후계·청년어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.

- **[수산계 학교 입학 활성화]** 후계·청년어업인 양성기관인 수산계고교·대학에 입학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진학지원 추진('23~)
  - 어선·양식장 체험, 설명회\*를 통해 수산계고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수산계고교 졸업자 대상 '특성화고 재직자 전형'\*\* 등 대학 진학 활성화 추진
    - \* 수산계고교의 특징점, 산업기능요원 등 혜택, 수산분야 직업 전망 등을 설명
    - \*\* 특성화고 졸업자가 산업체 근무경력 3년 이상일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입학전형
- **[수산계열 직업계고 지원]** 수산계고가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실습 지원, 취업처 연계 등 지원('23~)
  - 산학협력 프로젝트 추진, 수산계 고교 활성화 및 운영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(해수부-교육부-교육청) 정례협의회 운영(분기별)
- **[분야별 특화교육 지원]**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어선어업 및 양식산업 분야의 전문성 높은 교육 제공('23~)
  - 수산계 고교 승선실습 체계 개선\*, 비수산계학교 출신 어선해기사 양성 확대\*\*,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실습을 통한 첨단기술 습득 지원
    - \* 수산계고교 승선학과(7개교) 승선실습을 전문교육기관(해양수산연수원)으로 일원화('26~)
    - \*\* 해양수산연수원 어선해기사 5급 과정 확대(격년→매년) 등

## ③ 후계·청년어업인의 수산분야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.

- **[수산업 창업지원 강화]** 후계·청년어업인의 창업 지원을 위해 수산업 경영인 육성자금 지원규모 확대 및 지원조건 개선 추진
  - \* (융자규모) 1,200 → 2,000억원 / (어업인후계자) 금리인하(1.5→1.0%)  
(우수경영인) 금리인하(1.0→0.5%), 한도 증액(2→5억원)
- **[초기 경영부담 완화]** 어업법인 컨설팅 등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고 어선, 양식장 등 수산기반시설 임대로 수산업 진입 유도('23~)
  - \* 어선청년임대 : 국가·공공기관이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어선을 임대  
임대형 양식장 : 유휴 양식장 등을 확보하여 공공기관이 청년귀어인 등에 임차
- **[수산업 접근성 제고]** 산재된 수산업 관련 정보(정책자금 지원 조건 등)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포털·어플리케이션 개발('24~)

#### 4 후계·청년어업인의 어촌의 **생활여건**을 **개선**하겠습니다.

- **[어촌신활력증진]** 어촌 지역의 경제(수산물 유통·가공, 판매, 관광), 생활(빈집 리모델링, 헬스케어), 안전(방파제)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개선('23~)
  - \* 5년간('23~'27) 총 300개소 3조원 / 유형별로 개소당 50~300억원 지원
  - **(경제 활성화)** '어촌·어항 활력펀드' 조성, 어항시설 내 업종 규제 개선 및 '어촌 마을연금' 활성화 등 어촌 소득 다변화 지원
  - **(생활·안전)** 어업인 질환 예방프로그램 등 생활서비스 제공, 태풍·해일 등 재해 안전시설 보강, 공동쓰레기 집하장 조성 등 마을환경 정비
- **[정착지원]** 어촌 진입 부담완화를 위해 정착자금과 주거시설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귀어를 통합 지원하는 거점지원센터 조성('23~)
  - **(정착자금 등)** 후계·청년어업인의 안정적 어촌정착을 위해 정착자금 지원조건\* 개선 및 초기 귀어인을 위한 임시주거시설\*\* 확대 추진
    - \* (귀어자금) 한도 확대(창업 3→4억원), 주택자금 상향(건축단가 상승분 반영)(청년어촌정착) 한도·기간 확대 추진(최대 월 110→150만원, 최장 3→5년)
    - \*\* 어촌의 빈집 등 기존 시설을 정비하여 임대주택단지 등으로 제공
  - **(거점지원센터)** 청년들의 귀어를 통합 지원하기 위해 귀어귀촌 지원센터, 귀어학교, 귀어인의 집을 한 장소에 집적화하여 조성
    - \* 생활 인프라가 갖추어진 읍면 소재지 등에 조성('23년 경북 포항 1개소 → 전국적 확대)
- **[가족동반정착 지원]**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귀어인 가족 구성원이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지원 강화('24~)
  - **(일자리 매칭)** 구인-구직자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'어업인 일자리 지원센터'('23.2, 9개소)의 수산분야 일자리 매칭 기능 강화\*
    - \* 박람회·지역축제 등에 참여하여 일자리를 소개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로 전환
  - **(청년특화프로그램)** 어촌체험휴양마을('22.11, 124개소)에 청년 선호도가 높거나 청년 전문가가 주도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(서핑체험 등) 개설